6.2 (금요일)

교회 그 자체이신 예수

에베소서 1:22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 볕이 흐드러지게 찬란한 날 하천 변 산책로를 묵상하듯 걷다가 몇 군데 세워진 그늘막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들 몇몇이 모여있다가 지나가는 노인들을 붙들어 세웁니다. "커피 드시고 가세요. 김밥도 있어요." '천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소리가 귓등 너머로 천둥처럼 들립니다.
전 세계에 퍼져 몇 년 동안 소동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비척거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방향성을 잃고, 교인들은 거룩한 관습에서 벗어난 일시적 해방감에서 머뭇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는 끝났다'라는 말처럼 들려 섬찟합니다.
주님, 교회의 몸이신 당신께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는 목회자들에게 헌신할 힘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모습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걸음이 흩어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덮어 씌워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같이, 저희도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사랑하시는 교회를 거짓 진리로부터 지키게 하옵소서.
유한한 인생과 영원한 교회를 맞바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거룩한 가르침과 실행 안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강해져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하게 진리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바른 가르침과 모범을 목회자가 삶을 통해 본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은 건강한 영성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치열한 삶 속에서 주시는 열매를 선물을 넉넉히 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 (토요일)

스펄젼 목사님의 기도처럼

에베소서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주님의 교회를 복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소서. 교회에 허락해 주신 여러 활동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활동들이 그에 상응하는 내적 삶으로 지원받게 하소서. 마르다와 함께 여기저기에서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주님 곁에 앉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확고한 교리를 사랑하도록 회복시키시고 진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지도하는 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옛 능력과 그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옵소서. 작은 오순절들이 한데 모인 큰 오순절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해같이 밝게 빛나며 달같이 선명하며 깃발을 든 군대같이 무시무시하게 하소서."

스펄젼 목사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 저희의 기도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복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복 주옵소서. 나태한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우시고, 그들을 환영하여 맞아 가르칠 목자들에게 목숨을 건 십자가의 믿음과 능력을 더하소서. 교회가 하는 활동들이 세상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 활동들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출발하게 하옵소서. 아합의 때에 엘리야가 바위를 부수는 바람, 땅을 가르는 지진, 산을 태워버리는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동굴과 같은 심연에 침잠하여 세미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그렇게 주님 곁에 앉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가 확고한 진리의 전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옛 능력보다 더 큰 십자가에 능력을 옷 입혀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가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점점 더 큰불로 번져 나가게 하옵소서.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과 다르게 믿는 무리가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해같이 빛나며 달같이 선명한 십자가의 깃발을 든 교회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드님의 덕을 헤아려 이 시대의 교회에게 복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법인 웨슬리나눔재단

WESLEY NANUM

사단법인 웨슬리나눔재단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정기부금 모금 공익법인으로 평신도들의 기부를 받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취약계층과 국내·외 긴급복구 및 구호와 저개발국가 문맹퇴치운동 및 교육사업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웨슬리나눔재단에 함께해주세요.

CMS 후원하기
휴대폰으로 QR을 찍어 보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모아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 후원계좌번호 |
우리 1005-104-132198 (사단법인웨슬리나눔재단)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사회평신도국(내) (☎ 02-399-4349)

| 홈페이지 |
wesley-nanum.or.kr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제45회

평신도주일

영성회복, 교회회복 세상의 빛

기 도 주 간 2023. 5. 29 월 - 6. 3 토
평신도 주일 2023. 6. 4 주일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주일을 모든 감리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회심주간과 6월 첫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 **주최** 지방 **사회평신도부**
■ **주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5.29 (월요일)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마가복음 14:49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이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디든 오셔서 열린 가슴을 채워주시고 닫힌 가슴은 열어 주옵소서. 일그러진 모습뿐인 이 세상과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어서 당신의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키워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드린다고 해도 "필요 없다" 하실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건만 빈손인 줄 모르는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뼘도 안 되는 혀로 나와 타인을 칭칭 동여매는 어리석고도 허튼수작을 밝은 빛으로 녹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깨달음 없이 헛바퀴처럼 맴도는 혼(魂)들을 빛으로 불러내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크고자 하는 자에게 날로 커감을 허락하옵소서. 항아리를 씻듯 자신의 안팎을 닦아내는 자녀들을 이쁘게 보시는 하나님, 당신의 복을 채우사 저들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흙먼지 가득한 하늘 밑에서 맑고 고운 꽃들이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5월의 끝자락입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랐던 한 시인의 마음을 읽기조차 부끄러운 오늘, 당신의 아들을 본받아 '보니 좋았더라' 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천지를 축축이 적시고 소생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비로 쓸면서 찾는 여인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쓰실 때 저희를 동전처럼 거두어 주옵소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변절을 무위로 맞으며 정한 길을 가신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짐짓 덫에 걸리심이 잃은 자들을 찾고자 높이 든 등불인 걸 아는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아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0 (화요일) 오신 듯 가시고 가신 듯 오실

사도행전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짙푸르러져 가는 5월의 산과 들판을 봅니다. 모두 초록이고 푸르름이지만 그 어느 것도 같은 초록이 아니고 푸르름이 아닙니다. 밥 먹듯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읽는 굳어진 저희의 눈으로 보아도 당신의 5월은 같은 것 하나 없이 찬란하기만 합니다.
계절의 거울에 비춘 우리의 부끄러운 혼을 감추지 말게 하옵소서. 눈으로 본다지만 편견으로 안구가 두리번거리고, 입으로 말한다지만 연막을 치고, 귀는 늘 열려있는데도 마음은 녹슨 철문 같은 저희의 가슴을 뒤집어 주옵소서.
참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겉만 큰 것보다 작고 시시한 사물과 일에 더 정성을 쏟게 하시고, 나와 가깝게 인연 맺은 이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함과 생명의 오묘함을 터득하게 하옵소서. 일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일어남을 알게 하시고, 내 힘과 모든 정성을 우주의 운행 축에 가까이하는 데만 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기 전부터, 또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 있으면서 또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우리 안에 태초에 주신 그 순수한 씨알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덕지덕지 붙은 먼지와 더러움을 떼어내는 주님과의 시간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신 듯 가시고 가신 듯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1 (수요일) 하늘 뜻을 끝까지 따르다 가신

창세기 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님, 정신없이 살아온 시간을 아니 삶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영원을 향해 가슴을 더 크게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숨조차 멈추었습니다.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시고 들뜨고 바빴던 마음을 가라앉혀 청결한 믿음을 넣어주옵소서.
죽은 것같이 서 있던 마른 가지에서 숨소리가 들리더니 저마다 가지각색 새싹을 내는 나무들을 봅니다. 무심히 지나치며 밟았던 흙 속에서 작고 앙증맞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천지가 온통 생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렇듯 사방에 진동하는 생명의 소리와 향기에 취해 있다가 문득 내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 부여받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씨앗 하나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독히도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 안에 감춰진 생명의 씨앗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돈 버는 이야기만 하면 먹구름 끼듯 욕심이 차올랐던 순간순간들이 부끄럽습니다. 누가 잘 되었다 하면 난데없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시기와 부러움이 몰아닥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크고 작음도 더 함도 덜 함도 없이 한 포기 생명의 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저 빈 마음으로 큰 호흡을 하며 세상의 파도를 넘어갈 때,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몸 안에 흉한 것들은 다 끓이고 끓여 순한 것은 뜨게 하시고 탁한 것들은 가라앉혀 주옵소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서 당신을 본뜬 모습이 날로 명확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첨하지도 않고 친절하며, 비굴하지 않고 겸허하고, 거만하지 않고 태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늘 뜻을 끝까지 따르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 (목요일) 웃음과 기쁨으로 도달하는 인생의 종착역 있음을

디모데후서 4:8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인간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무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뭘 받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어두운 뭉치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씩은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를 아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 인생을 지으시고, 웃고 웃으며 또한 울고 슬퍼하며 이렇게 배우는 중에 한 줄기 빛을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작은 고기는 쾌히 놓아주고 큰 고기만 망태기에 담는 슬기를 주옵소서.
나 스스로 옳다 하는 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대로 내가 그르다고만 하는 자책에서도 걸어 나와 옳고 그름이 없는 아이들의 명랑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는 한 게 별로 없는데도 봄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심어 주시옵소서. 봄이 어느 요일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나무뿌리와 가지의 오르내리는 기운으로 하여 오듯이, 저희 몸과 마음과 깊은 의식과 명상과 생활 속에서 성령의 기운이 오르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낯선 이의 얼굴 속에서– 농담 속에서– 아이의 웃음 속에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큰 상실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녹여 버리는 거룩한 웃음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못난 사람, 아픈 사람, 고달픈 삶, 안타까운 삶,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자리였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웃음과 기쁨으로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